

BRAD REPORT

NO.28

2020년 12월

브래드 브리핑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미국,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유대인 신약성경
1차 번역이 끝났습니다

하누카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다름과 틀림의 차이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찾아가 그들과 인터뷰할 때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다른 분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들의 대답하는 방식이 참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확실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In my opinion'이라는 말을 앞에 단서처럼 붙입니다. 자기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며 자기보다 더 나은 학자에 의해 언제든지 정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겸손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의견이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그분의 의견은 말도 안 돼요. 그분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분의 의견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자기의 의견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단정 지어 말하거나 더 나아가서 비난하는 뉘앙스까지 비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나와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묘사와 서술의 차이가 있듯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브래드TV를 하다 보면 방송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댓글 창에 참 다양한 글을 올려주십니다. 제작진을 격려하는 글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글, 그리고 영상을 본 자기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는 글까지... 같은 말이라도 참 고맙게 써 주시는 분도 있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한 인격 비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글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이제는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방송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평가하며 틀렸다고 지적할 때입니다. 본인과 조금이라도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여지없이 상대방은 천하의 무식하고 천박하며 감사한 인간이 되고 사이버 이단으로 매도 시켜 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장문의 메일로 신학 강의를 합니다. 제대로 좀 알고 방송을 하라는 얘기죠.

남의 이야기는 단 1분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줄도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배우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꼭 진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완벽한 지식이 있을까요? 번역의 오류, 교육의 오류, 생각의 습관에 의한 오류는 없을까요?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을 만나 각자 생각하고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이념의 스펙트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그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고요. 단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확신에 차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견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때에, 우리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 5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미국,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10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메시아닉 사역자의 집을 삼켜버린 불길
- 14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이스라엘 외교 정상화, 바레인에 비밀 대사관 공개돼
- 16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유대인 신약성경 1차 번역이 끝났습니다
- 18 하누카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 20 하나님 말씀의 능력 6부
신대륙에 상륙한 성경
- 24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아프간 카불대학교서 무장테러 발생,
22명 사망 22명 부상... IS 소행
- 28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 30 브래드TV 10~11월 프로그램 리스트



도라포션 5781 2020~2021

율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롬 7:12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도라포션

키슬레브월

키슬레브월은 유대력의 셋째 달(니산월로부터 아홉째 달)로, 키슬레브 25일에 하누카 절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다. 시리아-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적은 유대 군대가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하누카는 기름의 기적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루를 밝힐 기름밖에 없었는데도 8일 동안 불이 타오른 것을 기념하여 밤마다 메노라를 밝힌다.

12월 키슬레브 & 테벳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키슬레브 15	2 키슬레브 16	3 키슬레브 17	4 키슬레브 18	5 키슬레브 19

바이실라흐 (그리고 그가 보냈다) 창 32:3~36:43 / 옴 1:1~21 / 히 11:11~20 마 26:36~46

6 키슬레브 20	7 키슬레브 21	8 키슬레브 22	9 키슬레브 23	10 키슬레브 24 하누카 1	11 키슬레브 25 하누카 2	12 키슬레브 26 하누카 3
-----------	-----------	-----------	-----------	---------------------	---------------------	---------------------

바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창 37:1~40:23 / 암 2:6~3:8 / 마 1:1~6; 16:25

13 키슬레브 27 하누카 4	14 키슬레브 28 하누카 5	15 키슬레브 29 하누카 6 핍삭	16 테벳 1 하누카 7 핍삭	17 테벳 2 하누카 8	18 테벳 3 하누카 8일째	19 테벳 4
---------------------	---------------------	---------------------------	------------------------	------------------	--------------------	---------

미케쯔 (끝에) 창 41:1~44:17 / 왕상 3:5~28 / 롬 10:1~13

20 테벳 5	21 테벳 6	22 테벳 7	23 테벳 8	24 테벳 9	25 테벳 10 크리스마스	26 테벳 11
---------	---------	---------	---------	---------	-------------------	----------

바이가쉬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창 44:18~47:27 / 겔 37:15~28 / 엡 2:1~10

27 테벳 12	28 테벳 13	29 테벳 14	30 테벳 15	31 테벳 16
----------	----------	----------	----------	----------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창 47:28~50:26 / 왕상 2:1~12 / 히 11:21~22 벰전 1:3~9

1월 테벳 & 쉘밧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테벳 17 신정	2 테벳 18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창 47:28~50:26 / 왕상 2:1~12 / 히 11:21~22 벰전 1:3~9

3 테벳 19	4 테벳 20	5 테벳 21	6 테벳 22	7 테벳 23	8 테벳 24	9 테벳 25
---------	---------	---------	---------	---------	---------	---------

쉐모트 (이름들) 출 1:1~6:1 / 사 27:6~28:13; 29:22~23 / 행 7:17~35 고전 14:18~25

10 테벳 26	11 테벳 27	12 테벳 28	13 테벳 29 핍삭	14 쉘밧 1 핍삭	15 쉘밧 2	16 쉘밧 3
----------	----------	----------	----------------	---------------	---------	---------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출 6:2~9:35 / 겔 28:25~29:21 / 롬 9:14~33

17 쉘밧 4	18 쉘밧 5	19 쉘밧 6	20 쉘밧 7	21 쉘밧 8	22 쉘밧 9	23 쉘밧 10
---------	---------	---------	---------	---------	---------	----------

보 (가라) 출 10:1~13:16 / 렘 46:13~28 / 눅 22:7~30 고전 11:20~34

24 쉘밧 11	25 쉘밧 12	26 쉘밧 13	27 쉘밧 14	28 쉘밧 15	29 쉘밧 16	30 쉘밧 17
----------	----------	----------	----------	----------	----------	----------

베살라흐 (그가 보낼 때) 출 13:17~17:16 / 삿 4:4~5:31 / 요 6:15~71 고전 10:1~5

31 쉘밧 18

이트로 (이드로) 출 18:1~20:21 / 사 6:1~7:6; 9:6~7 / 마 8:5~20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랜드
브리핑**



냉겨러지로 달려가는 미국,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난 2020년 11월 4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로 많은 미국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을 만큼 미국 국민들 사이에 꽤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번 선거였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나 아니면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냐, 사전 우편 투표에 부정의 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거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분위기는 어쨌든 미국의 유권자들은 결국 조 바이든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문제는 더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브랜드 브리핑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종철



아직까지 법정 공방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미국의 집권 여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미국 국민을 향한 정치와 국제사회를 향한 정책이 어땠었는지를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조 바이든 역시 민주당이니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과 핵합의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불림과 동시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불리는 이란 핵합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주도하면서 결국 2015년 7월 14일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었던 1천억 달러, 한화로 약 115조 원 이상의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 부셰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9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사찰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비밀 부속 합의(side agreement)를 맺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이슬람 성향

대체 오바마는 왜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에 유리한 합의를 작성했던 것일까요? 버락 오바마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이고, 이슬람의 정체성을 가진 무슬림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바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슬림이었고 부모도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기도를 알리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바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의 단원 6명을 오바마 행정부의 높은 요직들에 앉혔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슬림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모여 알라에 기도했고 이걸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Alex Wong/Getty Images)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반이스라엘 성향과 정책

오바마의 친이슬람 성향은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을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오바마는 새 중동정책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해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은 1967년의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19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니 모두 나가라는 얘기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는 얘깁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반성경적 국내 정책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반성경적 행보는 그저 친이슬람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미국 내에서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오바마 이전의 부시 정부는 여성의 낙태를 반대하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인 2009년 1월 23일, 이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 정책 계획안을 통해 앞으로 미국 연방 정부는 “결혼한 커플들에게 내리는 법적 권리와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락 오바마의 재임 기간이었던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버락 오바마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의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 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이며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악관 전체는 온통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 의회 앞마당엔 십계명 돌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인 2015년 7월 2일,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주의회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십계명 돌판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주 의회 앞마당에 있던 십계명 돌판 기념물이 철거되었다(Sue Ogrocki/AP)

결국 십계명 돌판은 수레에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옆에서 부통령의 자격으로 함께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의 미국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때 당시 미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슬람 종교와 동성애로 뒤덮여 버린 채 처참하게 부서지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미국은 끝나 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대로 미국을 포기하고 버리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낭떠러지로 미친듯이 달려가는 자동차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운전대를 새로운 인물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조금은 정신없고 즉흥적인 것 같고 입이 가볍고 예의가 없는 것 같은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성격이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으로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잔 소리가 메아리 치던 백악관에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친동성애 정책 철회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던 동성애의 물결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취임한 지 한 시간 만에 그 글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낙태 반대 운동 지지

트럼프는 낙태에 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귀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이스라엘 중동 정책

이렇게 성경적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중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는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정책을 깨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마침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미국은 워싱턴 DC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2019년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예루살렘에 이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미국 대사관

2019년 11월 18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발표들은 이제까지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선 2015년 합의했던 핵협상에 대해 이 협상이야말로 최악의 협상이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다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치러진 한 번의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치러진 선거는 미국을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역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행정 명령들부터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중동평화안도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고 1967년 6일 전쟁 이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이스라엘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골란고원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서안 지구 내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천 무효라고 했던 이란과의 핵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에 날개를 달아 주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협박과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나요? 이게 바로 미국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 동안 그의 곁에서 조 바이든이 해 왔던 일이 아닙니까?

대선 이후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미국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선거 투표에 많은 부정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트럼프 지지자와 조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전까지도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고 선거 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책을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바마 때처럼 백악관에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하고 트럼프처럼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짓의 영 이슬람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처럼 이스라엘과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메시아닉 사역자의 집을 삼켜버린 불길

지난 10월 9일, 나사렛 근처 노프 하가릴 지역에 3km를 뒤흔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일만 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야 하는 소동이 있었다. 대피자 중 재산 피해를 크게 입은 천 명이 임시로 시에서 제공하는 호텔 방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계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메시아닉 공동체 ‘스피릿 오브 라이프(Spirit of Life)’의 세르게이 보차니코브가 살고 있었다. 불길이 뒤흔치기 전 가족과 함께 피신하여 다치지 는 않았지만, 자택 일부가 완전히 전소되어 현재 호텔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르게이는 평소 아끼던 앞마당 나무가 재가 되어버린 것에 슬퍼했지만, 함께 대피한 메시아닉 공동체 지체 중에서는 집을 잃어버린 성도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다행스럽게도 소지품과 집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의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면 다시 예전처럼 주거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화 약 2천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올해 비가 적게 내려 기온이 평소보다 높았고 9월에 불었던 열풍으로 인해 불씨가 크게 번졌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프 하가릴 지역 외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화재가 일곱 군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사역자 세르게이의 가정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세르게이 사역자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으시고 자택 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스피릿 오브 라이프 공동체 지체들이 뜨겁게 연합하여 주님을 더욱 찾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인 뉴스에 등장한 아랍 그리스도인

앞서 말한 노프 하가릴 지역에서 유대인 명절마다 도시락을 전달하며 예슈아의 사랑을 전하는 나사렛 지역의 ‘왕 되신 예수님의 집 교회(Home of Jesus the King Church)’가 이번 화재 사고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유월절 기간에도 코로나19의 위협을 뚫고 구제 사역에 이바지했던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뛰어든 것이다. 교회의 담임 목사인 살림 살라쉬와 그의 아내 니스린은 화재가 일어난 당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의 감동을 받았고, 유대인과 아랍인을 향한 예슈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고 밝혔다.

살라쉬 목사는 노프 하가릴 도시의 시장인 로넨 플롯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음식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아랍인으로 구성된 이곳 교회는 일반 아랍인이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하며 인종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예슈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공영 방송 채널 12의 8시 뉴스에서는 나사렛에 사는 아랍인이 유대인 이웃을 돕는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정부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슈아를 따르는 아랍인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은 이번 일로 많은 유대인과 아랍인이 예슈아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살라쉬 목사와 니스린 사모의 사역을 통해 유대인과 아랍인이 예슈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사역의 지경을 넓히셔서 어려움에 부딪힌 모든 분이 빠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두인의 핍박과 긴급한 기도 제목

아라드 지역에서 수단 난민과 베두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사역하는 요야킴과 데보라 피구에라즈 사역자 부부가 지난 10월 10일 긴급히 기도를 요청했다.

한때 범법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 베두인 사히드는 몇 년 전 예슈아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친형이 직접 찾아와 사히드가 갖고 있던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성경을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 베두인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노마드로, 국가를 이루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씨족 사회 부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일반적으로 친족이 내리는 결정이나 삶에서 겪는 일을 본인의 일처럼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예수아를 영접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친형이 화를 냈던 것이다. 그리고 서른 명이나 되는 사히드의 일가친지가 요아킴을 찾아와 둘러싸고 얼굴에 침을 뱉고 돌로 치려고 했다. 다행히 요아킴이 본인의 자동차로 피신했지만 그들은 요아킴의 자동차에 돌을 던지며 차로 미행하는 등 매우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 요아킴은 경찰을 불러 사히드 형제를 보호하도록 요청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히드 형제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 배신자로 낙인찍혀 가택에 구금되었고, 친형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폭행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역자와 그 영혼을 위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요아킴과 데비 부부가 핍박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스테반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사히드 형제가 낙담하지 않고 예수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심령에 위로를 얻고 위기를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브 미니스트리 올가 비카스 사모의 수술

아비브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는 도브와 올가 비카스 부부가 기도 제목을 전해왔다. 올가는 그동안 척추에 심각한 통증이 있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져 결국 수술을 하기로 했다. 성공률이 30%를 밑도는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 위험 부담이 있는데 몸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집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척추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나, 지금은 과거에 못했던 자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한다. 아직 수술 후유증과 진통제 부작용으로 통증이 있어 몸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브와 올가 비카스가 사역하는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텔아비브의 여성 보호소에서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가 필요한 소녀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고 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한 신생아와 미혼모를 돌보아 주는 등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 있는 재활소에서도 계속해서 13명의 마약중독자를 섬기며 노방전도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찰이 이동을 제지할까 우려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감사했다고 도브는 전했다. 도브와 올가 비카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올가 사모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도브와 올가 비카스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지난번 교통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메시아닉 사역자 캐롤린 하이드의 소식을 전했는데, 최근 리차드와 캐롤린 부부가 또 하나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전해왔다. 리차드, 캐롤린 부부와 그리고 아들인 아리엘 하이드 형제는 모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갈릴리 지역에서 노방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 데보라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지난 9월 26일, 캐롤린은 딸 데보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기도하던 중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사페드 지역에 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 데보라가 당뇨병성 혼수상태로 인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에 실려 가던 중에도 심정지가 와서 길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간신히 응급실에 도착해 조치를 취한 뒤, 격리 시설에서 열흘 넘게 치료받았다. 치료하는 중에도 하루는 신장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가, 또 하루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격리 시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캐롤린은 데보라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며 직접 기도를 요청해왔다. 지금은 데보라의 신장과 폐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데보라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데보라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구원의 주인이심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리차드와 캐롤린 부부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강한 위로로 그들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아닉 사역 단체의 근황과 기도 제목

스데롯 지역의 '시티 오브 라이프' 사역 단체가 극렬 유대인 단체 야들 라킴으로부터 방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후 건물에 화재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노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야들 라킴은 정부에 압력을 넣으며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 시티 오브 라이프는 변호사와 함께 반박할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싱글맘과 이민자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등 많은 구제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쪽 아라드 지역에 메시아닉 단체 '케힐랏 하즈데이'가 베두인 여성을 대상으로 모임을 하며 전도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 사용하던 건물이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을 따르기에는 좁은 공간이고 열 명의 인원 제한이 있어 현재는 모임이 중단된 상태다.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제자 훈련 행사를 준비하는 '레크 레카' 사역 단체가 세미나 장소를 무사히 섭외했고, 세미나 참석을 두고 기도하고 있던 세 명의 지체 중 감사하게도 두 명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기도 제목

- 메시아닉 사역자가 하나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 메시아닉 단체가 어려움을 이겨내어 승리의 간증이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글/ KRM News 정리/ 신승의

2020년 10월 셋째 주 <10월 15일 ~ 21일>

이스라엘 외교 정상화, 바레인에 비밀 대사관 공개돼

이스라엘 사회가 서서히 다시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랍 수니 국가들과의 외교 정상화에 힘입어 정부와 정부 사이의 협력이 일반인 비자와 비즈니스 레벨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레인과는 11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레인에 비밀 대사관을 두고 일을 해왔었다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2009년 바레인에 컨설팅 회사를 세워 이스라엘 이종국적자들을 대사관 직원으로 두고 대사관 업무를 봐왔던 것입니다. 십여 년이 넘는 관계가 이번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레인과도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2020년 10월 넷째 주 <10월 22일 ~ 28일>

서안지구 포함된 과학 연구개발 지원 협약과 여권에 예루살렘 표기 허가

데이비드 프리드먼 미 대사와 네타냐후 총리는 수요일 서안지구에 있는 아리엘 대학교에서 “과학 연구개발 지원”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1972년, 1976년, 1977년에도 과학 연구개발 지원 협약을 맺었지만, 모든 협약에서 6일 전쟁 이후 합병된 서안지구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요일에 서명된 협약서는 서안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미국의 방침을 바꾸는 일입니다.



프리드먼 미 대사는 과거에 맺었던 서안지구 정착촌 지원 금지 협정을 취소하고 이번 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종국적자들의 미국 여권에 탄생 도시와 나라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연기시켜 놓았던 상태에서 물밑으로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서안지구 내 5천 가구의 건축도 허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막바지에 두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많은 안건들이 급히 처리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랑스 교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침수형 테러

10월 16일 한 교사가 찰리 헵도 주간지에 올려진 모하메드의 캐리커처 만화를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는 이유로 침수 테러를 당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의 교회 안에서 침수 테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21세 튀니지 출신 난민으로 10월 초 프랑스에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찰리 헵도 주간지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캐리커처를 내리지 않았고, 마카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터키를 필두로 한 중동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며 프랑스 불매 운동과 함께 시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도 텔아비브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터키를 필두로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점차 크게 번져가고 있는 반프랑스 시위

2020년 11월 첫째 주 <10월 29일 ~ 11월 4일>

미국 유대인, 이스라엘 내 유대인과 반대 입장

미 대선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과 미국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극좌 유대인 단체 J-Street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유대인의 77%가 바이든을 뽑았고, 74%는 이란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75%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을 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미국 유대인과 이스라엘 내 유대인이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대인의 5%만이 이스라엘 이슈가 가장 중요하거나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안건 채택

미 대선을 주시하는 사이에 열렸던 유엔총회에서는 성전산이 무슬림만의 장소라 선언하며 7건의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그중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에서의 인권 유린을 조사해야 한다는 안건과 골란고원을 시리아에 돌려줘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등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 안건들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0년 11월 둘째 주 <11월 5일 ~ 11일>

이스라엘 코로나로 주춤했던 경제활동 재개 흐름

이스라엘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로 떨어지면서 6주 만에 거리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자가격리를 12일로 줄이며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감염률 2% 내외로, 저녁 통행금지와 코로나 규제 벌금 증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그린” 국가로 추가되면서 그린 국가는 총 23개국 되었습니다. 대형몰과 나머지 비즈니스들을 열기 위한 코로나 위원회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청백당과 리쿠드당의 공방 끝에 사해와 예일랏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호텔과 유흥시설을 여는 것을 가까스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은 스태프들을 위한 코로나 신속 테스트 키트가 갖춰져야 열 수 있고, 관광객은 도착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호텔에 입장 가능합니다.



11월 8일 6주 만에 상점 문을 연 맘밀라 거리 모습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 유튜브 10만 구독자 기념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올해 2020년에 브래드TV의 가장 축하할 일 중 하나는 단연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 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기 전 2명이 모자란 99,998명일 때는 꽤나 가슴 떨렸었는데 지난 9월 21일에 10만 명을 돌파하더니 그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 이제는 11월 27일 기준으로 정기구독자가 105,260명을 넘었습니다. 직원들과 쇼파르 나팔도 불고 케이크도 먹으며 축하하고 주변 분들의 많은 축하와 응원의 글을 받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지난 10월 16일에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주는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실버버튼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 함께 앞으로 걸어갈 추진력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00여 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면서 브래드TV도 참 많이 성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2020년에 브래드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브래드TV가 더 좋은 영상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빈 백스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사역 단체 ‘엔타임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어빈 백스터(Irvin Baxter) 목사님께서 지난 11월 4일 (미국 시각으로 11월 3일) 향년 78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심장 수술로 기력이 쇠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셨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끝내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브래드TV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어빈 백스터 목사님과는 지난 2011년 영화 ‘제3성전’의 인터뷰 때 처음 만난 후로 10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브래드TV의 ‘지금엔 마지막 때’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대와 마지막 때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사위이자 지금은 마지막 때의 공동 진행자인 데이브 로빈스는 “우리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을 그리워하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그의 유산을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엔타임 미니스트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대인 신약성경 1차 번역이 끝났습니다

지난 7월, 더운 여름에 모여 번역과 출판에 대해 회의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고, 11월 16일 드디어 1차 번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막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과정에 걸쳐 유대인 신약성경을 출판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먼저 3명의 번역자가 번역한 초고를 다시 검토하고 읽으면서 번역의 오류는 없는지, 온전히 그 뜻을 의도한 대로 담았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문체와 용어 등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호 리포트에 유대인 신약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과 비교하여 맛보기로 실었습니다. 유대인 신약성경이 다른 성경 번역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분이 있다면 10월호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브래드 리포트 홈페이지(report.bradtv.net)에 들어가면 이전에 브래드TV에서 발행했던 리포트를 모두 읽어볼 수 있으니 꼭 들어가 볼 것을 추천합니다.

브래드TV에 지원하세요

브래드TV와 함께 일할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브래드TV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을 제작할 제작PD와 그래픽 디자인, 홈페이지와 쇼핑몰 관리, 웹 매거진 제작을 맡을 그래픽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분, 취업을 준비하며 쉬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브래드TV에 지원할 것을 적극 추천해주세요.

지원 방법은 브래드TV의 이메일 주소(bradfilm123@gmail.com)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우측 QR코드를 찍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하누카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리/ 신승의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력 아홉 번째 달 키슬레브 25일이 되는 날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이다. 보통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12월 초순 즈음에 있다고 보면 된다. 예루살렘에서는 매년 하누카가 되면 공공기관, 도시나 마을의 곳곳에, 다양한 모습의 하누카 촛대를 세운다. 그리고 집집마다 창문에 하누카 촛대를 놓아 어두운 12월의 밤을 밝힌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누카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와는 거리가 먼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누카를 지키는 것이 맞을까? 아래 하누카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하누카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누카의 기원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2백 년 전, 로마가 침략해오기 전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헬라 제국의 사악한 통치자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핍박했다. 유대교의 관습과 성경 읽기가 금지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 성전을 더럽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사람들은 더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탄압에 반기를 든 마카비 가문과 뜻을 같이한 이들이 게릴라전을 펼쳐 그리스군을 무찌르고 신전과 도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이교도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봉헌하였다.

성전을 밝히기 위한 기름과 메노라

성전을 밝힌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헬라 제국이 세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치워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에 말씀하신 등불 기름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자 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짙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결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 27:20-21)

등불을 켜되 끓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거대한 일곱 개의 촛대의 메노라에 다시 불을 피워야 했다. 성전을 밝히기 위한 기름은 아무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의 성화 과정을 거친 정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했는데 남아 있는 정결한 기름은 오직 하루 동안 피울 수 있는 양밖에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무려 8일 동안 불을 밝힐 수 있었고, 그동안 충분한 양의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계속 성전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누카 때 사용하는 메노라의 촛대는 7개가 아닌 9개인 이유가 이 8일간의 기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하누카 기간에는 8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가운데 촛대 자리에 있는 초는 ‘샤마쉬(중)’로, 나머지 촛대의 초를 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쬐기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수님께서 하누카를 지키시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다른 여호와의 절기와는 달리 하누카는 예전부터 지키던 절기는 아니다. 하지만 부림절(Purim)이 에스더서에 나온 것과 같이 하누카 또한 성경에 적혀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한복음 10:22-23)

‘수전절’이라는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 때 가증스럽고 추잡한 신성모독이 있던 후 신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재봉헌한 데서 유래되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인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께서서는 헌신의 날인 하누카(하누카는 헌신을 의미한다)때 성전에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빛의 기적을 기념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34-38)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기회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해피 하누카”라는 말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걸 더 익숙해한다. 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하는 날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지 않는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쬐기는 데 사용하며 더럽혔던 성전은 바

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기록한 성전이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듯 예수님께서 하누카(수전절)를 기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쬐기는 자들이 함심하여 하누카 축제를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혹시 알고 있는 유대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카드를 쓰거나 직접 “해피 하누카”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를 지키거나 축하해야 할까? 그럴 만한 율법적인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하누카가 이런 절기라는 것을 이해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가 되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원포이스라엘



금요 사뵓 예배 온라인 생중계

LIVE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 시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Brad TV'의 종🔔 모양을 눌러 온라인 생중계 알림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6부 신대륙에 상륙한 성경

글/ 쉬라 소르코 램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처형하는 소리가 16세기 내내 교황들과 카톨릭 왕실 내에서 낮게 이어졌다. 그리고 연이어 잉글랜드의 유명한 헨리 8세는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통제를 쫓아내고 자신을 신규 잉글랜드 교회(후에 이것이 잉글랜드 성공회로 알려짐)의 수장으로 선언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낳지 못한 아내와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놀라운 것도 없이, 카톨릭 교회의 아무 수치심도 없는 뻔뻔한 통제와 완전한 부패는 새로 탄생한 잉글랜드 성공회의 왕실 지도자들에게로 빠르게 전이되었다. 당시 교회가 교리와 행실에서 발전이 거의 없다고 본 청교도 사람들은 따로 자신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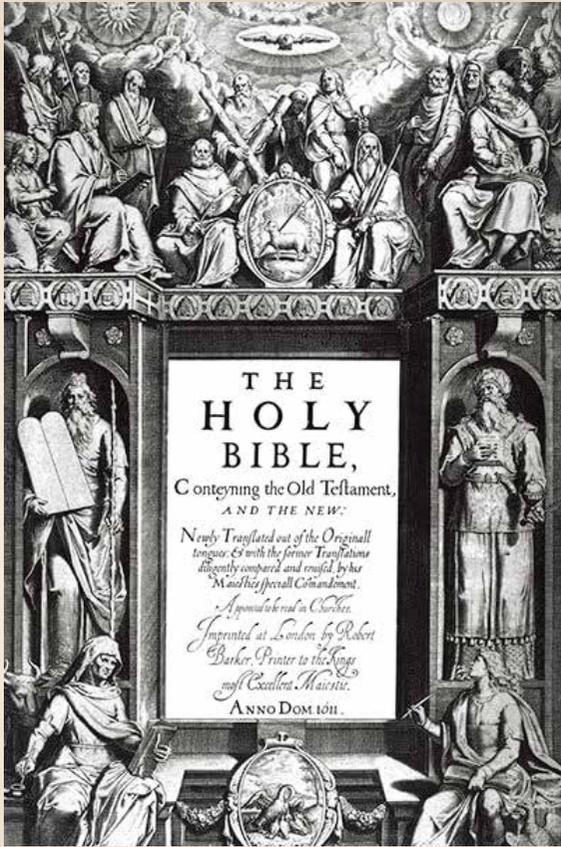
바에 따라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헨리 8세가 죽고 얼마 뒤, 그의 딸 “피의 여왕” 메리가 왕좌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되돌려 놓기로 작정하고 약 300명의 성공회 학자들을 화형시켰다. 살아남은 학자 800명은 유럽 대륙으로 도망쳤다. 도망친 학자들 중 다수는 프랑스 제네바로 가서 종교개혁가 장 칼뱅 밑에서 공부했다. 이 성경학자들은 ‘제네바 성

경’을 만들었는데, 이는 최초로 절 앞에 숫자가 매겨진 영어 성경이었다. 그리고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인쇄되었는데 이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약 50년 앞선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에 대해



제네바 성경



1611년에 완성된 킹제임스 성경 최초 발행본의 표지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지만, 수 세대 간 청교도를 포함한 많은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왜 번역 작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새롭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을까? 메리 여왕 다음으로 즉위한 아들 제임스 1세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제네바 성경에서 성경 구절들 옆에 쓰여있는 주석에 기분이 상했다. 주석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왕까지도 다스린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최고의 자리에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그러한 주석이 없는 성경을 원했다. 비록 제작의 동기는 불순했지만 제임스 1세는 하나님 말씀의 필연성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시 76:10). 왕립 학자들은 결국 역대 가장 널리 읽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신대륙을 향해 떠나자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은 제네바 성경을 들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항해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난 것이었다. 배에 탄 102명의 청교도 중 겨우 52명만이 첫 번째 겨울을 이겨냈다. 후에 그 땅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나라가 탄생할지 상상도 못한 채, 오로지 믿음만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신대륙에 점점 인구가 늘어갈수록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해졌다.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성경을 찍을 수 있는 인쇄기가 없었다. 게다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영국 법에 따르면, 성경은 영국에서만 인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와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륙에 성경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식민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도착한 지 160년 후인 1782년 9월 12일이 되어서야 “혁명의 성경”이라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본이 의회법에 의해 승인되었다.

믿음으로 길을 닦다

신대륙에 도착한 초기 영국 선구자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곳을 찾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 기초 위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었다. 반면에 남미 국가들은 금을 캐러 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 나라들 대부분은 수 세기 동안 엄청난

난 가난과 범죄로 고통받았고, 성경을 거의 접하지 못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국가들을 지배했으며, 카톨릭이 우위에 있는 곳에서는 항상 개신교들 및 “현지어” 성경과 쓰디쓴 전쟁을 이어갔다. 사실 20세기까지는 이미 없어진 언어가 된지 오래인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카톨릭 교회가 허락하는 유일한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들도 잊지 않으셨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남미 나라들은 엄청난 부흥과 굉장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복음주의와 오순절과 계열이 그렇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의 족쇄를 떨쳐내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성경 번역

1800년대 이후 특히 영어권 국가들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완전히 힘을 쏟았다. 그 당시에 400개의 언어 집단이 번역된 성경을 받게 됐는데, 그중에 최초의 중국어 성경도 있었다. (더 정확한 중국어 성경 번역은 1992년에 끝났다.) 더 최근에는 75년 전에 생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67년 동안 50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다음 500개 언어를 번역하는 데에는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다.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정말 많다. 현재 세계엔 7천 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중대한 일이라는 하나의 진리가 번역가들을 하나로 엮어준 것이다.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은 1400년대에 인쇄 출판을 하던 스케일을 훨씬 초월할만큼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내에 세상의 모든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디지털 프린팅과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번역 기관들의 연합

2010년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있었다. 10개의 성경 번역 기관들이 모여 세상에서 “성경 빈곤”을 박멸시킬 방법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 회의를 통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Every Tribe Every Nation, ETEN)”라는, 2033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언어

로 성경을 최소한 일정 부분만이라도 번역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연맹이 탄생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 합쳐 50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 10개 단체들

은 가히 빛의 속도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있다.

앞으로 13년

그러니까 겨우 13년 안에 이 기념비적인 책무를 완성시킬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체 이름은 잠시 넣어두기로 했다.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기관들 간에 중복된 프로젝트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데이터, 언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성경 번역의 사실상 모든 단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성경 번역이 한때는 25~30년이 걸렸지만, 기술 발전으로 그의 1/10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새로운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디지털 성경 도서관(The Digital Bible Library)에 2,100가지의 성경 번역본을 업로드해서 60억 인구 모두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풀어놓으실 예정이다.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계획 중 하나는 스페이스X의 CEO 엘론 머스크가 만든 것이다. 그는 지표면 위 1,100m 가량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최대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머스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회사나 다른 회사의 기술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기기든 성경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

이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한다. 그건 바로 표적이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다. 필자는 이것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뉴욕타임즈>에서 발견

했다. 분명 그들은 이 전면 기사를 쓰면서 이것이 어떤 예언적 의미를 갖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반세기 전,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문맹인 상태였다. 이제 인류의 성인 가독률은 90%에 달하고 있다. 특별히 여성 교육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 교육과 능력 부여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의 없다. 이번 21세기에는 질병과 문맹, 그리고 가장 극심한 형태의 빈곤이 사라져가고 있다.”, “불과 60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항상 문맹이었고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20여 년 정도면 문맹률과 극빈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다.” -2019년 12월 30일자 <뉴욕타임즈>

주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바, 천상의 구속된 성도들이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다(계 7:9).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전 세계가 모두 글을 읽게 되도록 정해두셨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땅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닿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세상의 모든 언어 집단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헌신하는 영웅과 같은 번역가들을 일으키셨다. 성경에서 복음은 모든 나라와 종족, 민족, 언어들에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출처 : 마오즈 이스라엘
www.maozisrael.org

사진 출처 : Wikipedia



11월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주요 소식

정리/ 이다운



2020.11.2 월

아프간 카불대학교서 무장테러 발생, 22명 사망 22명 부상... IS 소행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대학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전은 6시간에 걸쳐 계속됐고, 아프간 당국은 치안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캠퍼스를 봉쇄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 3명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11월 3일에도 오스트리아 빈 시내에 있는 유대인 회당 근처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빈 테러가 처음부터 회당이 표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테러에 반유대주의가 배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자신들이 카불 테러와 빈 테러의 배후라고 밝히며, 빈 테러의 가해자로 지목된 쿠즈팀 페줄라이가 총과 톱칼을 든 채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의 영상을 배포했다. 프랑스에서 불 지피진 이슬람 무장 테러가 유럽과 중동에 퍼져나가고 있어 염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 기도 제목 ◆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이슬람의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유럽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유럽을 위해 중보합시다

2020.11.2 월

이란, 핵 협정의 12배 넘는 저농축 우라늄 보유 드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회원국에게 배포한 기밀문서를 통해 11월 2일 기준으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442.9kg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란 핵협정에서 허용한 202.8kg을 훨씬 넘는 수치이며, 지난 8월에 대비해 재고가 약 340kg 더 증가한 것이다. 이란은 농축 농도 또한 핵 합의 기준인 3.67%보다 높은 4.5%로 유지해, 핵합의에 대해 지속적인 위반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 바이든의 전 수석 보좌관은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시,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는 것이 바이든의 최우선 순위”라고 전했다. 이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까지 매주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며 바이든이 해제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만 사우디 국왕 또한 11월 12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강하게 옹호하며, 이란 핵협정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중동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기도 제목 ◆

이란이 핵협정에 대해 작지만 계속적인 위반을 이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막아주시고 보응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지 않고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0.11.3 화

말라위, 예루살렘에 대사관 세울 첫 아프리카 국가 됐다

아이젠하워 음카카 말라위 외교부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내년 여름까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말라위는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울 세 번째 국가이며, 아프리카 국가로는 첫 번째가 되었다. 말라위는 1964년 이후 이스라엘과 중단 없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 또한 말라위에 농업을 비롯한 많은 원조를 제공해 왔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말라위를 따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길라드 에르단 UN 주재 이스라엘 대사 또한,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수도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줘서 감사하다”며 말라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 기도 제목 ◆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말라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화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말라위와 이스라엘 간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중보합니다

2020.11.8 일

**미국 대선 바이든 유력 상황에
팔레스타인 “환호”, 이스라엘 “침묵”**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을 알리면서,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은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때의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바이든에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다시 옮길 것과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기금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주요 미디어가 당선을 확실시한 지 12시간 만에 긴 침묵을 깨고 축하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전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 개인에게 보여준 우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간츠 및 다른 이스라엘 의원들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시간이나 늦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았다투어 다루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다.



◆ 기도 제목 ◆

미국이 부정 선거의 의혹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비리와 부정을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주님의 공의로 미국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미국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축복하는 나라로 미국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도록 중보합니다

2020.11.10 화

**이스라엘에 또다시 다가오는
4차 선거의 그림자**

11월 10일 열린 크네셋 회의에서 베니 간츠 대체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간츠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재무부가 이미 2021년 예산을 준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네타냐후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1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간츠와 의견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간츠가 속한 청백당의 중진 의원 5명은 예산안 논쟁에서 간츠가 또다시 양보할 경우 청백당에서 탈당해 새로운 야당을 결성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11월 8일에는 간츠와 야미나당의 당수인 베넷이 만나 연합정부 해산과 조기 선거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베넷은 이날 “국가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다. 연합정부는 지난 8월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마감 기한을 12월 23일로 연기했고, 12월에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자동 해산한다.



◆ 기도 제목 ◆

미국 대선의 결과로 간츠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정부 해산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0.11.13 금

**이스라엘-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수입 계약 체결**

이스라엘이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화이자와 800만 회분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이스라엘 국민 400만 명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밝혔다. 백신은 내년 1월부터 이스라엘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네타냐후는 전했다. 또 이스라엘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도 백신 구매 계약을 맺어 400만 회분의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된다. 11월 11일 이스라엘의 하다사 병원도 러시아와 백신 수입 계약을 맺어 150만 회분의 백신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1일에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자체 개발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을 2명의 남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봉쇄 이후 확진자 수를 600명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조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를 잠잠하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봉쇄 이후
침체됐던 경제 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가운데,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0.11.15 일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 신규 정착촌 추진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 내 기바트 하마토스에 주택 1천247채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개시했다. 이번 정착촌 입찰 개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본격적인 정착촌 건설은 바이든이 집권할 시 그의 임기 초반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조 바이든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1967년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가 모두 있는 종교적 분쟁지이며 유엔 등 국제 사회는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대선의 혼란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 정착촌 건물 건축 및 증축 안건들을 빠르게 처리해나가고 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모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준비되고 주권과 영토 문제에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이 기사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Endtime ministries에서 발행되는 Endtime 잡지에 기고된 글을 옮긴 것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각 영역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번째 나팔>

에르도안: 터키 전체는 군대로 무장되어 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오스만 제국의 부활에 대한 그의 야심을 선언한 지 오래되었다. 최근 그는 어떤 권력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르도안은 터키에는 군대를 보유한 게 아니라 터키 자체가 군대라고 주장하며 적들을 향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싸우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 상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은 대만 영공에 전투기와 폭격기 운항 빈도를 늘렸고 최근에는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중국 지도부는 군부대에 2020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뺏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명령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할 새로운 힘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무기의 위협에 펜타곤 지도부가 대항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군 고위층에 의하면 중국은 인공위성을 격추할 미사일 실험했고 러시아는 미국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궤도 시스템을 배치했다. 미국 국방부는 우주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 기지 개발에 돌입했다.

<신성로마제국>

EU, 세르비아와 코소보에 예루살렘에 대사관 개관 경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개관하려는 것에 대해 EU가 경고했다. EU의 대변인 피너 스타노는 “예루살렘을 향한 EU의 입장에 반대하는 행위는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는 미 백악관과 경제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에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신세계 질서에 저항

런던의 마스크 반대 운동 무리가 슈퍼마켓에 난입하여 사람들에게 ‘신세계 질서’에 저항하여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운동가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메가폰을 들고 복도에서 소리쳤다. 그들은 “당신들은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신세계 질서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당신들을 신세계 질서에 끼워 맞추려 한다”라고 말했다.

LGBT 반대 지역에 지원 중단한 EU

“LGBT 반대 지역”이라고 선언한 폴란드의 여섯 개의 도시에 대해 EU가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우리는 유럽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며, 원하는 곳을 다니고, 사랑하고,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평등의 연합이라는 가치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승의 표>**생각을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전자 신호로 뇌에 정보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다. 생각, 기억, 의도와 행동을 읽을 수 있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하던 장비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윤리, 법, 도덕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시급하다.

스타링크 인공위성 인터넷

스페이스X는 대기시간이 매우 짧고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100메가 이상 이 나오는 실험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미국에 이미 엄청난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아마존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3,236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비대면 지불 방식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새로운 트렌드 비대면 지불 방식이 대두되었다. 소비자들이 이 방식에 적응하면서 초소형 시장(micro markets)이 대중적으로 더 익숙해지게 되었다. 미국의 CVS 약국은 최초로 터치가 필요 없는 지불 방식을 채택하여 전국 8,000지점에 2020년 말까지 보급하도록 했다.

<세계 정부>**ICC로부터 이스라엘, 미국 방어 법안**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하는 새로운 법안이 이스라엘의 크네셋에 입법되었다. 해당 법안은 국제 재판으로부터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인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이 자신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IAEA: 이란 우라늄 비축량 10배 초과

2018년 미국의 핵협상 파기와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이란은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위반해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협상에서 규정한 한도의 열 배가 넘는 되는 양의 우라늄을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 미국이 유엔에 보고한 지 2주 만에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19: 대규모 리셋 (The Great Reset)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최하는 ‘유니크 트윈 서밋(Unique Twin Summit)’ 정상회담의 주제는 ‘대규모 리셋(The Great Reset)’이다. 이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탄력 있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위해 경제와 사회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미래를 더욱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하며 사람과 지구를 글로벌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계 종교>**플래너에서 성경 구절을 삭제한 학교**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렉산더 카운티의 한 교회는 새 학기를 앞두고 600개의 넘는 주간 플래너를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부했다. 뒷면에는 빌립보서와 예레미야 두 구절이 쓰여 있었지만, 학교는 이 부분을 자르고 나눠줬다. 교육부와 학교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하지만 성경 구절이 있는 플래너를 주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건물을 모스크로 바꾼 에르도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모스크가 되었다가 박물관이 된 제2의 고대 정교회 교회를 다시 무슬림 예배 장소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아야 소피아를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꾼지 한 달 만에 내린 결정이다. 그리스 외무부는 이번 결정이 “모든 종교인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카운티가 교회를 폐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판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교회 제한 조치에 대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카운티는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제출했다. 청문회에서 판사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권리 침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교회의 의견에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티는 교회의 임대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 10~11월 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0~11월 프로그램 리스트 (10/28 - 11/18)

브래드쇼

10/28

노래로 히브리어를 쉽게 배우세요
/ 이학재 교수



11/4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
/ 브레이브소서, 김소중

11/11

[스페셜] 트럼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 쉬라 소르코 램



11/18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재림 약속
/ 브렌트 밀러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10/28

- 수단,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 맺을 5번째 국가
- 가자 지구 남부서 국경 넘은 땅굴 발견... 하마스 소행
- 프랑스서 고교 교사 수업 중 이슬람 풍자 만평 보여줬다 살해 당해
- 마크롱, 이슬람 극단주의 대해 압박 선포



11/4

- 이스라엘-미국, 서안 지구와 골란고원까지 과학 협력 확대
- 예루살렘 출생 미국인, 여권에 '이스라엘'로 출생지 표기 허용
- 에르도안, 이슬람 분리주의 마크롱에 "정신 상태 문제 있다" 발언해 논란
- 비엔나 회담 인근 6개 지역서 이슬람 테러 발생... 최소 4명 사망, 15명 부상

11/11

- 미국 대선에 중동, 엇갈린 반응
- 또 이슬람 테러... 아프간 카불대학교서 총기 테러에 22명 사망, IS가 배후
- 말라위, 예루살렘에 대사관 여는 첫 아프리카 국가
- 미국, 이스라엘에 F-22 스텔스 전투기 판매 허가



11/18

- 이스라엘에 또다시 드리운 4차 선거의 위협
- 이란, 허용치 12배 넘는 우라늄 보유 드러나
- 바이든 전 보좌관, "바이든 이란 핵 협정 복귀할 것"
- 아랍 공동체서 코로나19 확산에 이스라엘인 서안 지역 출입 금지령

브래드 브리핑



10/28
미국 대선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온다?



11/11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미국,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은 마지막 때



- 11/4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의 연합 (1)
- 11/18 세계 종교와 사회주의의 연합 (2)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1/4
 -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 올가 비카스 사모의 수술 결과는?
 - 메시아닉 사역체의 근황과 기도 제목
- 11/18
 - 이스라엘 국회가 메시아닉 단체를 핍박하는 방법
 - 텔아비브의 메시아닉 지체를 위한 기도
 - 드보라 하이드의 근황과 기도 제목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 10/28
 -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전 중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
 - 예루살렘 부시장이 참가한 걸프만-이스라엘 여성 포럼
 - 제4회 기독교 미디어 서밋



- 11/4
 -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와의 관계 진척상황
 - 아브라함 협정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각 변동
 - 성경, 미디어, 유대국가의 중요성
 - 제4회 온라인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

- 11/11
 - 프리드먼 미국 대사에게 듣는 중동의 현재와 미래
 - 이란의 위험성과 성경적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 협정
 - 미 대선이 이스라엘과 중동에 미칠 영향
 - 유대인들의 미 대선 관계 분석



- 11/18
 - 미 대선이 이스라엘과 중동에 미치는 영향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속보
 -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보는 바레인 국민의 생각
 - 봉쇄 기간 동안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CBN 이스라엘

금요 샅밭 예배

- 10/23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나? 범사에 많으니! / 이재철 목사
- 10/30 죄악론 5강
 -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다 심판 아래 있다 / 김중배 교수
- 11/6 룯의 교훈을 배우라 / 이정 목사
- 11/13 이것이 사라가 누린 헛수라 / 이재진 선교사

이정 목사의 토라포선

- 10/28 3번째 주 "레크레카"
- 11/4 4번째 주 "바예라"
- 11/11 5번째 주 "하예이 사라"
- 11/18 6번째 주 "톨도트"

이학재 교수의 노래로 배우는 히브리어

- 11/4 1강 - 히브리 알파벳
- 11/18 2강 - 히브리 모음 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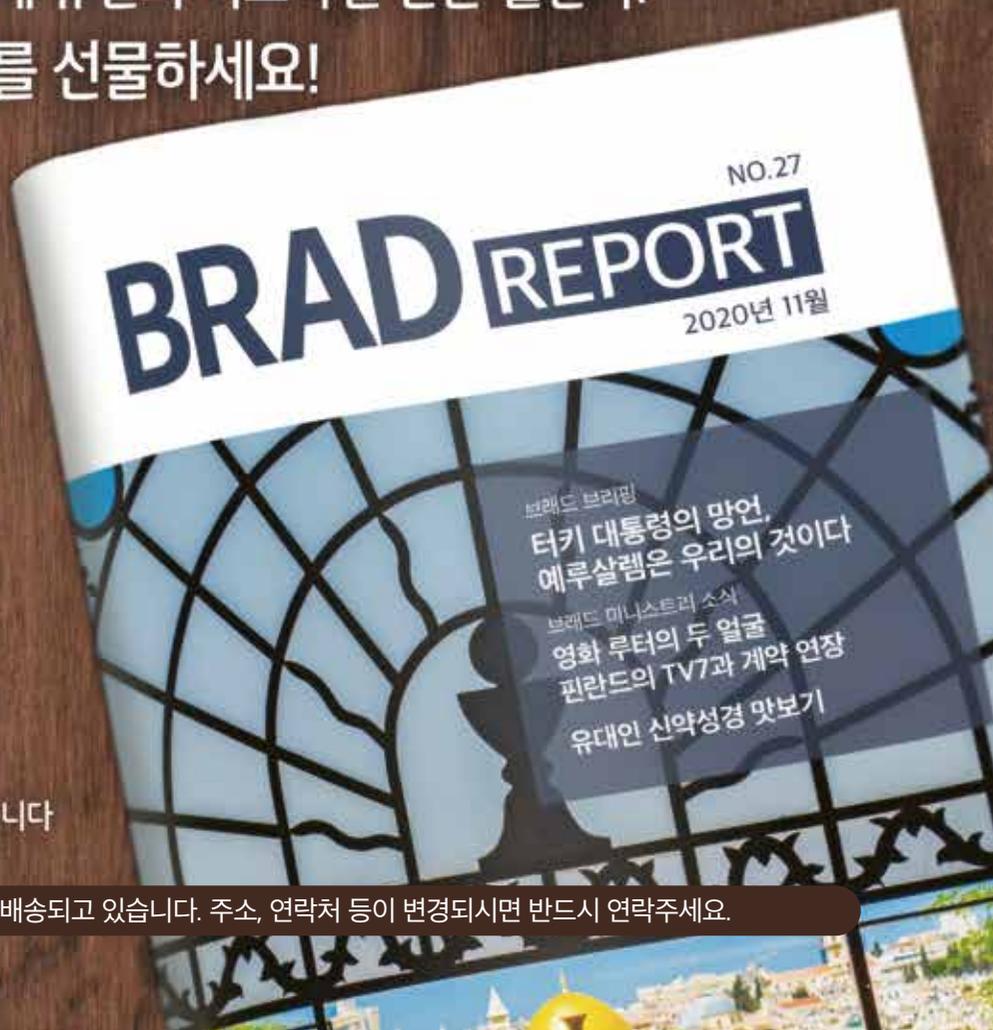


브래드TV에서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이스라엘 전문 월간지! BRAD REPORT를 선물하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브래드TV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매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싶다면 브래드 리포트를 선물해보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구독료 5만원
문의 전화 031-926-2722

※ 해외의 경우, 배송료가 국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